

김 지사 “전남 국립의대… 15일까지 양 대학 결단 기대”

실국장 정책회의서 “통합 정상 보여” 목포·순천대 7차례 실무협의체 회의 의정 협의체 협상 테이블 논의 시급 공모 설득력 떨어져…통합의대 최선

전남 국립의대 1차 공모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여야 협의체에 관련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기 위해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르면 15일까지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며 양 대학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정책협의회에서 “현재 양 대학의 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관련 부분을 빨리 해소해 15일까지 통합에 합의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양 대학은 이달 초까지 약 일곱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견 차이를 좁히고 원활한 통합을 진행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양 대학 총장이 그동안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등 대응적 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원에서 양보, 협력하며 통합 협의를 잘 이 끌면서 대학 통합도 이제 거의 정상에 이르렀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가 내년 2월 중이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으로 인해 관련 안건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 빨리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출범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

등 전제조건 없이 다양한 의료 현안이 논의되는 만큼 ‘전남의대 신설’이 안전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가능하다면 이달 25일 마감 예정이었던 의대 추천을 앞당겨 중앙에 보고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방안이 협의체에서도 거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이 불발되면 공모 방식을 통해 한 개 대학에 동부권, 서부권 두 개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공모 추천은 의정협의체에서 통합의대보다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최선책은 대학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의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대학의 미래 발전은 물론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양 대학 통합은 지역의 상생과 화합 정신에 부합한다”며 “부속 대학병

원 운영 또한 통합대학이 캠퍼스별로 부속대학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나눠서 부속대학병원을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결단이지만, (양 총장이)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도민만을 바라보며 최소한 15일까지 합의해 결론을 내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양 대학이 앞으로 더 협의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이며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의 1차 공모는 15일 마무리되며, 단독 응모 또는 응모 대학이 없을 경우 2차 공모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평가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면 및 대면, 현장평가를 통해 실시되며, 용역사는 결과 종합 및 점수가 확정되면 추천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용역사는 공모 마감일인 20일 전까지 양 대학에서 통합에 합의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통합합의를 제출하면 공모를 보류하고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1면서 계속 광주에 이전한 기업들은 “지금이야말로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이 부족하다’,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치기업에 최대 3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본요건이 투자금액 1억원 이상에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투자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시 고용인원이 어려운 대목이다. AI 관련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는 AI 인재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사관학교에서 매년 200~3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즉시 전력감’은 아니다. 직원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중견급 회사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들은 초보 인재보다는 중급급 인재를 확보하길 원한다.

광주를 떠난 한 기업 대표는 “광주에서 채용하고 싶어도 초급 개발자들 위주여서 어렵다”고 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폐쇄한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이라며 “2025년 예산에 AI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유치 기업에 대한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김영록 ‘3위’·강기정 4%↑

김 지사 57.7%…9월 대비 1.7%p↑
강 시장 47.9%…특광역시에선 2위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일반 지수’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위에 입성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전월 대비 4.0%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 조사 결과 김 지사는 10월 도정 긍정평가에서 57.7%를 기록, 전월 대비 1.7%p 상승했다.

1위에는 60.4%를 달성한 김관영 전북

도지사가, 2위는 57.9%를 기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3.9%를 기록했던 전월 대비 4.9%를 기록, 무려 4.0%p 오르는 등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8위지만, 특광역시로 좁혔을 경우 단체장 중에서는 50.3%의 김두겸 울산시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긍정평가다.

주민생활 만족도의 경우 광주시는 61.8%로 전월 58.0%보다 3.8%p 상승하

며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전남도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58.4%를 기록했던 9월 대비 2.2%p 상승하며 60.6%를 달성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매일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와 주민생활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O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9월27일~30일, 10월27일~30일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3%다.

오지현 기자

자본감소 공고

당 회사는 2024. 11. 11.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 금510,000,000원 중 금16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35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51,000주를 35,000주로 할 것을 결의하고, 16,000주를 무상소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본 공고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2024. 11. 13.

주식회사 삼원종합건설
목포시 하당로 173(상동)
공동대표이사 최낙배 이비호 최인영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에매

공연문의 및 전화에매
1588-0766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고문의

팩스 (062) 519-0709
直通 (062) 519-0710

全南日報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뀔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전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전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